

가스 형성 간 농양 3례

광주 기독 병원 내과 이현정*, 명형준, 손두식, 송유근, 홍건영, 서강석, 임연근

간 농양은 비침습적인 진단 기술의 발전, 항생제의 발달, 비수술적인 배농 방법의 개발 등으로 과거에 비해 치료율이 향상되고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중요 질환이다. 이 중에서도 가스 형성 화농성 간 농양은 매우 드물고 비화농성 간 농양에 비해 증상 기간이 짧고 당뇨 환자에게 주로 발생되며 농양의 크기가 크고 패혈성 쇼크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다. 저자들은 가스 형성 간 농양 3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 증례 1) 25년의 당뇨 병력을 지닌 68세 남자 환자가 발열, 오한, 의식 기면, 핏뇨를 주소로 내원하여 복부 컴퓨터 촬영상 10×8 cm 크기의 가스 형성 간 농양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, 초음파 유도하 경피천자 및 배농술 시행 후 간 농양과 동반된 패혈성 쇼크, 우측 흉막 유출 모두 호전되었고 배양 검사상 *Klebsiella pneumoniae*가 확인되었다. 증례 2) 내원 1 달 전 담도암으로 유문보존 체십이지장절제술을 받고 식욕 감소를 주소로 내원한 3년의 당뇨 병력을 지닌 68세 여자 환자에서 복부 컴퓨터 촬영상 9×7 cm 크기의 가스 형성 간 농양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, 초음파 유도하 경피천자 및 배농술 시행 후 호전되었고 배양 검사 결과 *Klebsiella pneumoniae*가 확인되었다. 증례 3) 과거 당뇨병 결석과 담낭 결석으로 담낭 절제술과 총담관절제술 및 T관 배출을 시행한 10년의 당뇨 병력을 지닌 79세 여자 환자가 무상복부통증과 오한을 주소로 내원하여 복부 컴퓨터 촬영상 8×8 cm 크기의 가스 형성 간 농양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, 초음파 유도하 경피천자 및 배농술을 시행 후 호전되었고 배양 검사 결과 *Stenotrophomonas maltophilia* & *Alcaligenes xyloxydans* 복합 감염이 확인되었다.

간경변증에서 미미한 Aminotransferase 수치 증가와 AFP의 급격한 상승을

동반한 만성 B형 및 C형 간염 악화 증례

분당 제생 병원 소화기 내과

배진수 MD, 박상종 MD

서론: 기존 연구들의 보고에 의하면 급성 간염이나 만성 간염의 악화시 AST/ALT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, 또한 500 mg/dL 이상의 alpha-feto protein(AFP) 수치는 간세포암의 발생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자들은 간경변증의 환자에서 만성 B형 및 C형 간염이 악화되었으나 AST/ALT 수치의 증가는 미미하면서 간세포암의 발생없이 AFP수치가 4000 mg/dL 이상으로 높게 측정된 두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증례: HCV와 연관된 간경변증을 가진 59세 남자 환자로 외래에서 1년여에 걸쳐 간기능 및 AFP수치를 추적 검사한 결과 AST/ALT 수치는 174/80 IU/L 가 가장 높게 측정된 것이었고, AFP수치는 4720 mg/dL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. Liver CT, MRI, hepatic angiogram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였으나, 간세포암은 발견되지 않았다. 조직 검사상에서는 'Severe porto-periportal activity, mild lobular activity and septal fibrosis' 소견만이 관찰되었다. 간경변증과 만성 C형 간염의 악화와 연관된 AFP상승으로 진단하고 Interferon과 Ribavirin 치료 3개월 후 AST/ALT수치는 89/90 40.6 IU/L로 AFP 수치는 40.6 mg/dL로 감소되었고, HCV(PCR) 음성으로 측정되었다. HCV와 연관된 간경변증을 가진 58세 여환으로 1년여에 걸쳐 외래에서 시행한 간기능 및 AFP수치 추적 검사 상 AST/ALT수치는 201/36 IU/L 가 가장 높게 측정된 것이었고, AFP수치는 5480 mg/dL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. HBeAg(+)/Ab(-) 였고, HBV-bDNA titer는 5582 mg/dL로 측정되었다. Liver CT, MRI, hepatic angiography를 순차적으로 시행한 결과 간세포암은 발견되지 않았다. 간경변과 만성 B형 간염의 악화 진단하에 Zeffix 치료 5개월 후 AST/ALT수치는 35/19 IU/L로 AFP 수치는 28.6 mg/dL로 감소하였다.

결론: 본 증례들을 통해서 간경변증을 동반한 만성 간염의 악화시 aminotransferase수치의 증가가 미미한 경우도 종종 있으며, AFP수치의 지속적인 상승이 간세포암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 간염의 악화로 의미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.